근대 이끈 불교인 면면 조명하다

종단협, 12월 6일 근대 불교인물 조명 세미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기 한국사회를 이끌었던 불교인들을 발굴 ·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나라 빼앗긴 일제암흑기 등불을 밝힌 불교인'을 주제로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인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종단협이 1년동안 진행한 '근대사회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홍보 사업'의 마무리로 해당 사업은 일제강점기 항일투쟁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을 이끈 불교계 지식인들을 조명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종단협은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7명의 연구위원단을 구성해 독립 · 문화 · 예술 · 여성 · 교육 및 청년 등 다섯 가지 주제로 11명의 인물을 선정했다. 이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드뉴스, 포스터, 영문 소개책자를 제작해 회원종단에 배포했으며 라디오와 TV를 활용해 홍보캠페인도 진행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단협에서 발굴했던 11명의 근대기 불교 인물들을 조명하는 소논문들이 발표됐다.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승무를 통해 근대 무용을 이끌었던 한성준을 조명했다. 진관 스님은 "한성준의 승무는 조선 유생들에게 탄압받았던 불교가 역사관을 회복하며 새롭게 근대기 조선인들을 위무하는 춤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엽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근대기 불교미술사학의 거두였던 고유섭 선생의 면면을 살폈다. 최 전문위원은 "우현 고유섭은 불교미술 연구에 매진하며 신생 학문의 서구적 방법론에만 매몰되지 않고 조선 미술사를 위한 방법론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문화 · 독립운동 · 교육 등서 활동
근대 불교 인물 11인 발굴 · 조명
"인물 연구 통해 불교 지평 넓히길"

박노영 선생을 조명한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는 "박노영은 격동의 시대에 출가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후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조선의 현실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자 노력한 선각자"라며 "박노영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단협과 조계종, 통도사, 옥천사 등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5일 근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불교 인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는 조선불교여자청년회장으로 불교 교육과 여성 계몽운동을 펼쳤던 우봉운을 조명했다. 한 교수는 "우봉운의 불교계 활동은 수행의 범위를 넘어 근대 여성의 능력 계발이라는 목표를 보여 근대 불교계 여성활동가로 내세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경집 한국전통문화대 교수는 묵당 강유문의 면면을 살폈다. 강유문은 역사를 공부한 불교인으로 44세를 일기로 입적하기까지 사찰 등에서 다양한 계몽운동을 펼쳤다. 김 교수는 "강유문은 건강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한국불교 역사를 밝히려고 최선을 다한 불교인이었다"고 밝혔다.

황상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한국불교사 최초의 거사 모임 '한국불교거사림'의 토대를 마련한 해원 황의돈을 조명했다.

이밖에도 종단협은 도서관의 아버지라 불리며 조선불교사를 정립한 용제 박봉석, 신평정터 만세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신화수, 일제강점기 불교사회운동을 선도한 이종천, 신여성이자 화가로 비승비속의 삶을 살았던 나혜석을 근대 인물로 선정해 발표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은 "격변기에 사회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불교인의 활동을 뒤돌아봄으로써 불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직할교구 사자암, 동국대에 1000만 원 기부

건학위 '지역불자장학' 기금 전달
동작구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조계종 직할교구 사자암(주지 영원)이 동국대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2월 7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자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에서는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는 곽채기 교무부총장과 김애주 대외협력처장, 박광현 교무학생처장, 사자암 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사자암 주지 영원 스님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화엄사 인천포교당 영응사 주지 우문 스님과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자헌 스님이 대신 참석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을 연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이 오늘 행사로 27회를 맞이했다"며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장학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동국대학교에 대한 더욱 큰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학업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채기 교무부총장도 "건학위원회 출범과 함께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장학금 사업을 통해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소중한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사자암 주지 영원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원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우문 스님은 "영원 스님이 주신 소중한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장학 명칭에 알맞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민기(컴퓨터공학전공 3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사자암과 영원 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홍민기 학생은 "좋은 기회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찰 덕분에 장학금을 받게 됐다"며 "이 장학금으로 학업에 전념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한다. 건학위원회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모든 사찰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복지 발전, 자비실천에 앞장 서겠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2월 7일
2022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
"불국정토 위해 주마가편 자세로"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자비나눔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복지 현장 곳곳을 누비는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자비나눔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4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2022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를 봉행했다. 국악 공연으로 흥겹게 시작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한 이들에게 '힐링' 시간을 선사하며 성대한 막을 올렸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비롯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 국회의장 공로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등 32명과 6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유공자들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금목탁이 주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은 순천포교당 대승사 주지 보리 스님, 김일준 종로노인종합복지과장, 정종길 여수전남병원장 등 11명과 직지사 백련암 영상반야회, 하나금융나눔재단,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등 단체 3곳이 받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먼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불교사회복지를 이끌고 있는 불교계, 사회복지계 복지 실천가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초발심시변정각이라는 화엄경에 담긴 말씀처럼 이웃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내밀었던 처음에 일으킨 마음으로 이 땅이 불국정토 돼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물러남 없이 다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경과보고 후 종사자들에게 "불교사회복지의 위상강화를 위해 힘써줘 고맙다"며 "사회복지와 자비나눔으로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자"고 격려했다.

정관계 축하도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시상 후에는 축하떡을 나누며 올 한 해 노고를 격려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불교사회복지 발전 의지를 다졌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일상생활 보시바라밀 전하는 것이 포교"

해외특별교구, 12월 1~3일
홍대선원서 승려 연수교육



조계종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정우)와 국제전법단(단장 정범)이 12월 1~3일 서울 홍대선원(JustBe Temple)에서 '국제 전법의 현황과 포교 전략'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연수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해외 포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원 인증 승려 연수 교육으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과 국제 전법에 관심 있는 스님 30여 명이 참여했다.

스님들은 해외 한국사찰의 현황과 종단의 국제포교 방향, 관련 부서를 살펴보고 국내 외국인주민 현황과 포교방안, 세계불교도우의회의 활동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미국 디트로이트 젠센터를 창건, 포교하고 있는 활선 스님을 줌으로 연결해 현대의 포교방법에 대해 듣는 시간도 가졌다.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밥 먹고, 일하고 지내면서 선을 찾고 몸소 보시바라밀을 전하는 것이 포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행공동체를 이뤄 수행과 포교를 시작한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의 강의가 이어졌다. 스님은 2003년 도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명상공동체 운영 시작부터 2022년도 홍대선원을 만들기까지 여정을 소개했다.

이날 교육은 유튜브와 줌으로도 진행됐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참여한 스님들은 자유로운 소통이 좋았다고 평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학교
제20대 총장 초빙

본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이끌어주실
총장님을 모십니다.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현직 총장으로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제출서류
· 지원서(지정서식) 1부
  * 지원서 이력내용 공간 부족시 이력서 추가 제출 가능함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A4 3매 이내)
· 동국대학교 발전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A4 5매 이내)
· 추천서(지정서식)
  ※ 서식은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로드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2.12.13.(화)~12.14(수), 17시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처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4층
법인사무처

기타
· 등기우편인 경우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총장후보자 추천에서 제외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 참고
· 문 의 (TEL) 02-2260-3005~7 (FAX) 02-2260-8973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